



# 조선 전기 음악 1392~1592년

⇒ 조선 전기의 음악을 감상하고 음악적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.

왕조가 바뀌면서 음악은 백성을 교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궁중 음악이 크게 발전하였다. 유교 사상을 중시한 조선 전기에는 고려의 향악을 계승하였으며, 예악 사상을 바탕으로 궁중 음악이 새롭게 정비되었다.



▲ 종묘제례악



▲ 대취타



▲ <악학계범>



▲ 세종

정간보가 창안되고 '어민락', '정대업', '보태평' 등의 악곡이 만들어졌다. 박연과 명사성을 중심으로 아악과 향악을 정비하고, 율관과 편경을 제작하였다.



▲ 세조



▲ 성종

오음약보가 만들어지고 '보태평', '정대업'을 종묘제례악으로 채택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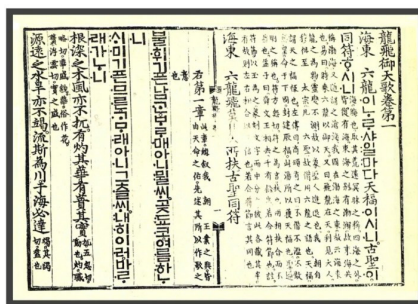
성현을 중심으로 많은 학자가 음악 이론을 집대성한 <악학계범>을 편찬하였다.

## 궁중 음악

### 어민락

'어민락(與民樂)'은 '백성과 더불어 즐긴다.'라는 뜻으로, 세종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만든 곡이다. 원래는 '용비어천가'를 노래하며 관현악 반주가 따르던 성악곡이었으나, 지금은 노래 없이 기악곡으로 남아 있다.

❖ '어민락'을 감상하고 음악과 관련된 세종의 업적을 알아보자.



▲ 보물 제1463호 용비어천가



▲ 세종의 편경 제작